

한국축구 ‘황금세대’ 중심에 광주·전남 선수들 있었다

‘주장’ 황태현, 영리한 플레이
‘엄살라’ 엄원상, 공격진 활기
‘제2 기성용’ 김정민, 중원 분투

“이제는 2020도쿄 올림픽이다.”
‘골짜기 세대’로 홀대받았던 한국대표팀이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처음으로 FIFA 주관대회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뚜렷을 열어보니 이번 대표팀은 역대 최악체인 ‘골짜기 세대’가 아닌 ‘황금세대’였다.
오히려 대표팀이 조별예선 1차전에서 불은 포르투갈은 과거 루이스 피구, 후이 코스타 등을 주축인 ‘골든 제너레이션’의 활약으로 FIFA U-20 월드컵의 전신인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1989년과 1991년에 대회 2연패를 한 세대에 이어 ‘뉴 골든제너레이션’으로 불리는 강팀이었다.
이름 값에 밀린 대표팀은 전반 부진을 딛고 후반에는 ‘제2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조타(벤피카), 게드손 페르난데스(벤피카), 트란강(브라가), 라파엘 레앙(릴) 사이에서 주목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플레이를 보여줬다. 비록 0-1로 패했지만 자신

감을 찾았을 수 있었다.
정 감독을 중심으로 ‘원팀’을 이룬 대표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일본, 세네갈, 에콰도르 등을 차례로 격파했다.
정정용 감독은 이강인(발렌시아)을 비롯해 한국 축구의 황금세대를 발굴했다. 이번 대표팀은 이강인의 원팀으로 불리며 스타플레이어가 없었다. 대회를 앞두고 기대를 모았던 정우영(바이에른 뮌헨)은 소속 팀의 차출 거부로 소집되지 못했다. 김정민(리퍼링),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세진(수원), 조영욱(FC서울)이 전 부였다. 하지만 정 감독은 원팀으로 만들었고 선수들의 역량을 극대화시켰다.
U-20 월드컵 준우승의 중심에는 광주·전남 출신 황태현(안산그리너스FC), 엄원상(광주FC), 김정민이 있었다.
이들 태극전사는 폴란드에서 열린 2019 FIFA U-20 남자 월드컵 대회 내내 맹활약, 1983년 4강 신화를 넘어 한국의 준우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광주 경양초·광덕중·금고고를 졸업한 ‘엄살라’ 엄원상은 후반 조코로 주로 출전하며 공격진에 활기를 넣었다.
그는 아쉽게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

했지만 장기인 스피드와 드리블을 활용해 좌우 측면을 가리지 않고 공략했다.
해외의 유명 스카우터는 그를 보고 “파괴력에 굉장히 놀랐다. AC밀란 선수였던 카카를 연상케하는 플레이를 보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광양제철남초·광양제철중·광양제철고를 나온 황태현은 대표팀 주장으로 결승전까지 전 경기 선발 출전하며 대표팀의 오른쪽 측면 수비를 책임졌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술선수범한 황태현은 위기 상황 시에는 영리한 플레이로 상대 공격을 지연시키며 결승행에 일조했다.
‘제2의 기성용’으로 불리는 광주 금고고 출신 김정민은 중원에서 분투했다. 촘촘히 수비진을 구축한 우크라이나를 공략하기 위해선 전진패스가 뛰어난 김정민의 선택은 당연해 보였다. 기대와 달리 김정민은 컨디션과 체력 난조를 드러내며 따라 실수를 범했다. 김정민에게 아쉬운 한판이었다.
이번 대회 부진했지만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군 면제 혜택을까지 얻은 김정민은 대표팀에 필요한 자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15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우지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결승에서 이강인이 전반 패널리티 킥을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인이와 대한민국 선수들 자랑스럽다”

외할머니, 밤새 결승전 응원
강진 성전 처인마을 유명세

“강인이가 골을 넣어서 좋는데, 대한민국이 저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강인의 외할머니 김영례(86·전남 강진군 성전면 처인마을)씨는 16일 새벽 한국과 우크라이나전에서 전반 이강인이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넣자마자 처인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과 목놓아 ‘이강인’을 연호했다. 하지만 1-3으로 뒤진 채 종료 휘슬이 울리자 김씨는 “국민들이 너무 기대했는데 우승하지 못해 너무 서운하다”며 “그래도 강인이가 큰 상(골든볼)을 받고 다치지 않고 경기를 마쳐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강인이와 대한민국 선수들이 한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쓴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날 처인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이강인의 첫 골을 내 일처럼 기뻐하며 김 할머니를 축하했다. 주민들은 “강인이 때문에 마을이 유명해졌다”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주민들은 결승전을 앞두고 마을 입구에 ‘강하다! 김영례의 손자 대한민국



이강인의 외할머니 김영례(오른쪽에서 네번째)씨와 주민들이 16일 새벽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처인마을회관에서 이강인이 첫 골을 터트리자 환호하고 있다.

의 아들 이강인’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응원에 나섰다.
처인마을 이장 송정희(여)씨는 “우리마을이 전국적 주목을 받는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일 것”이라며 “강인이가 앞으로 더 성장해 우리마을과 고향을 더 빛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강인의 어머니 강성미(47)씨는 성전

면 월평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이후 목포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에서 유치원 교사로 지내다 남편 이운성씨를 만났다. 이강인은 초등학교 때 어머니 고향인 처인마을 회관에서 팀원들과 숙식하며 강진에서 열리는 축구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글·사진=윤영기 기자 penfoot@

이강인, 18세에 MVP... 메시 이후 14년만

‘골든루키’ 준우승에도 골든볼
압도적 기량에 세계가 주목

이번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은 이강인 위한 무대였다. 이강인은 대회 MVP에게 수여하는 골든볼을 수상하며 세계최고의 ‘골든 루키’로 떠올랐다.
이강인(18세 3개월 27일)은 2005년 네덜란드 대회 때 골든볼을 받은 리오넬 메시(18세 8월)에 이어 2번째 어린 골든볼 주인공이 됐다.
역대 U-20 월드컵에서 18세의 나이로 골든볼을 여섯번째 선수다.
1979년엔 디에고 마라도나가 18세의 나이로 골든볼을 받은 이후 유고슬라비아의 로베르트 프로시네치키, 2005년 대회 리오넬 메시, 2019년 대회 이강인이 ‘18세 골든볼’의 계보를 이었다.
20세 이하 월드컵은 세계 축구를 미래 축구스타들의 등용문이다. 2005년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2007년 세르히오 아게로(아르헨티나), 2013년 폴 포그바(프랑스) 등 세계적인 축구스타들이 골든볼을 수상했다.
U-20 대회에서 잠재력을 폭발한 이강인

역대 U-20 골든볼 수상 주요 선수				
				
1979년 디에고 마라도나 아르헨티나	2001년 하비에르 사비올라 아르헨티나	2005년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2007년 세르히오 아게로 아르헨티나	2013년 폴 포그바 프랑스

자료/ FIFA

연합뉴스

은 유럽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발렌시아 팬들도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을 제2의 파블로 아이마라라고 부르며 찬양하고 있다. .

현역 시절 축구공을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며 ‘El Payaso’ (어릿광대)로 불린 아이마라는 우아함의 대명사였다. 1997년 U-20월드컵 대회의 전신인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출전해 고

국인 아르헨티나의 5번째 우승을 이끌며 브론즈볼을 받았다. 이후 이강인의 소속팀인 발렌시아로 이적해 현재 기성용의 소속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이끌고 있는 라파엘 베니테즈 감독 아래 재능을 꽃피워 2003-2004 프리메라리가와 UEFA컵(유로파리그 전신) 등 ‘더블’을 달성한 레전드다. 리오넬 메시의 우승으로 알려졌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임 야

-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 인접 땅지도 15만~20만원씩매매됨
-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함
- ▶ 992㎡, 공유 지분 매매
- ▶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 ▶ 도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H.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뿔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19. 7. 2(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 시 : 2019. 6.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2019-089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총 87기)

사업명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기수	비고
보성 ~ 임성리 철도건설 사업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산62-8	3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산60-7	1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산83-13	1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산88-23	1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산89-1	1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산490-2	1	
계		8	

- 개장사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공사 추진
- 공고기간: 2019년 4월 15일 ~ 2019년 7월 15일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이장업체에서 납골당에 안치(안치기간 10년)
- 신고 및 연락처: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 061-840-5044, 5176)
-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 증명 서류 (제적등본, 족보, 신고인 도장, 신분증 등)
- 기타: 상기 사업의 편입지번 내에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 06. 17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임 야 매 매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산 55, 55-1, 54번지
20,493㎡ 17억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산95, 95-3
51,475㎡ 23억

010-8443-5165

개 인 직 거 래